

## 개념 적용 수업 교안/학습지/연습문제

방법

실행

1. 제시(25분)

\*\*제시와 연습을 합쳐서 45분인데, 앞 부분에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5분으로 두었음

1) 전형적 예

교사: 이번 시간에는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 주의 집중

(개복이, 개새 그림 제시)

교사: 여러분,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두가지 동물이 합쳐진 모양이요. 어떤 동물들일까요?

학생: 거북이랑 개요

교사: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런 동물이 있다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학생 발표)

학생: 터틀독이요, 개복이요 등등

교사: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말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사진은 뭐라고 할까요? 이걸 개와 새가 합쳐진 사진이에요.(학생 발표)

학생: 개새, 버드도그 등등

교사: 여러분들 굉장히 답을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개복이나 개새 같은 말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기존의 단어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도 있겠죠? 그것이 오늘 배울 합성어와 파생어입니다.

3) 개념 정의

교사: 합성어와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속합니다. 복합어는 앞에 본 '개새'와 같이 두가지 성분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반대로 단일어의 경우는 하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 말 같은 단어들이 단 일어입니다. 복합어와 단일어, 합성어와 파생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식제시)

5) 주의 집중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살펴봐도록 하겠습니다.  
(덧밥, 지우개 그림 제시)  
덧밥과 지우개는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학생 : 덮 + 밥 입니다 / 지우 + 개 입니다.

교사 :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덮밥은 합성어이고 지우개는 파생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 : 덮밥에서 덮과 밥은 모두 실제 의미가 있지만, 지우개에서 개는 그렇지 못합니다.(만약 학습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답을 유도할 것.)

교사 : 네 그렇습니다. 덮밥에서 덮과 밥은 모두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지우개에서 개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단위를 ‘어근’이라고 하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 접사입니다. 그렇다면 합성어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것입니다.

교사 : 그렇습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생어는 어떨까요?

학생 :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교사 : 맞습니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 혹은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때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합성어는 어근 + 어근 / 파생어는 어근 + 접사입니다. 예시를 보면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제시된 단어들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하도록 하세요.

(10분 후)

- 6) 예
- 7) 다양성
- 8) 예가 아닌 경우

교사 :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날짐승은 날이 날아다닌다는 어근, 짐승도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밤낮도 밤과 낮이라는 어근이 더해진 합성어죠. 지붕은 집+웅으로 이루어졌는데, 집은 어근이고, 웅은 접사라서 파생어입니다. 다만, 웅이 잘 안 쓰이는 접사라서 소리나는 대로 지붕이라 쓰입니다. 무덤의 경우는 묻 + 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생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노래하다, 먹다’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결론부터 말하면 노래하다는 파생어이고 먹다는 단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됩니다.

노래하다는 노래 + 하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하다’는 접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근 뒤에 오는 접사인 접미사의 특성을 ‘하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단어의 기능을 바꿔줍니다. 원래 ‘노래’는 품사의 기능에서 어디에 속하죠? 표를 보고 대답해볼까요?

학생 : 체언이요

교사 : 그렇죠. 그런데 노래하다는 어디에 속하는거 같나요?

학생 : 용언이요.

교사 : 이렇게 접미사는 단어의 기능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먹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먹다는 용언이죠.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죠. 어간과 어미

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에는 단어로 취급합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이거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연습(20분)

- 1) 연습 가/나/다
- 2) 다양성

교사 :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고, 또한 주어진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우리말, 말쑤꾸러기, 낫추다, 놀이터, 죽었다, 높다

그러면 같이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틀릴 경우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세요. 두번째 문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 말로 합성어, 말쑤꾸러기는 꾸러기가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입니다. ‘낫추다’의 경우 다소 어렵습니다. ‘낫추다’에서 ‘추’가 문제인데, 추는 접미사입니다. 아가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준다고 했죠? 원래 낫다는 형용사인데 낫추다는 동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낫추다는 파생어입니다. 놀이터는 어떨까요? 놀이터는 놀 + 이 + 터입니다. 어근과 접사가 합쳐서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단어를 이등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터를 이 등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놀이 + 터인가요, 놀 + 이터인가요?

이렇게 분리된 것은  
 ✓ 합성어 개변  
 (원칙?)

학생 : 놀이 + 터입니다

교사 : 그렇습니다. 이때 놀이와 터 모두 실제적 의미를 가진 어근이기 때문에 놀이터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의 경우는 죽다라는 단일어에서 어미의 활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었’은 접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었’이 접사라면 뒤에 붙었으니 접미사일텐데,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품사가 변했나요?

↓  
 놀이터  
 활용?

학생 : 아닙니다.

교사 : 따라서 죽었다는 단일어입니다. 높이다의 경우는 높다라는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높이다는 파생어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사 : 모두들 오늘 수업을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연습문제를 보면서 본인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문항은 오늘 연습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본 후에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말을 만드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3. 피드백
- 1) 동기화
- 2) 유도
- 3) 정보제시

위에서 제시함.

## ‘합성어와 파생어’ 수업 학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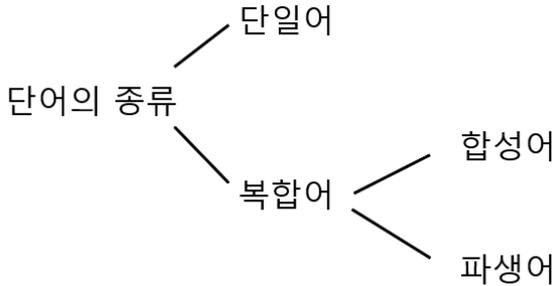
반/이름 :

### 1.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이 동물들의 이름은?



해당 이미지는 <https://www.funshop.co.kr/goods/detail/61273>에서 가져옴  
개념들간의 관계도



### 2.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1) 어근과 접사 : 단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핵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로 분류한 것

어근 – 핵심적인 의미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앞에 붙으면 접

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사이 | 털 | 밥 | 지우개

어근 어근 어근 어근 접사

## (2) 합성어와 파생어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 - 어근 +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어근 + 접사(접사 + 어근)

## 3. 다음 단어들을 분석해봅시다

날짐승    밤낮    지붕    무덤    노래하다    먹다

어근 + 어근 어근 + 어근 어근 + 접사 어근 + 접사 어근 + 접사 어근

\*접미사는 품사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구성성분어 어간 + 어미일 경우에는 단일어로 취급한다.

## 4. 연습문제

\*빨간색 글씨가 정답입니다.

### 1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 = 어근 +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어근 + 접사(순서 무관)으로 이루어진 단어

2 예시를 보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다

죽었다 = 단일어

우리말 = 합성어

낮추다 = 파생어

말썹꾸러기 = 파생어

꽃사랑 = 파생어

‘합성어와 파생어’ 수업 평가 문항

반/이름 :

\*빨간색 글씨가 정답입니다.

### 1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순서 무관) 이루어진 단어이다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blue ink, including a large circle around the question and a signature that reads "김영민" with a checkmark.

## 2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다음 단어들을 성분분석하고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판단하세요.

단어	성분분석	판단
살았다	어근(어간 + 어파)	단일어
첫사랑	첫(어근) + 사랑(어근)	합성어
사랑하다	사랑(어근) + 하다(접사)	파생어
출렁거리다	출렁(어근) + 거리다(접사)	파생어
맏딸	맏(접사) + 딸(어근)	파생어
꿇주리다	꿇(어근) + 주리다(어근)	합성어

